

濟州市議會會議錄

第 31 回

閉會式
濟州市議會

日 時：西紀 1960年 8月 6日 下午 3時 15分

場 所：濟州市議會 議事堂

第31回 濟州市議會 閉會式 節次

- 開 式
- 國民儀禮
- 閉 會 辭(議長)
- 業績報告(幹事)
- 祝 辭(市長)
- 萬歲 三唱
- 閉 會

〈閉 會 辭〉

오늘 第31回 臨時議會 閉會式을 舉行함에 있어 不肖 議長으로써 생 각되는바 이번 會期中에 있어서 우 리들의 任期 滿了를 裝飾함에 부끄 럽지 않은 훌륭한 業績을 남김으로 서 有終의 美를 거두게되는데 對해서 無限한 기쁨과 同慶을 禁치 못하오 을 于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31回 臨時議會를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榮 光스러운 이 자리를 물러서게 되는데 對해서 一抹의 感懷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실로 感慨無量한바 있음은 非但 議長인 이사람만이 所懷가 아니

라 여러 議員께서 똑같이 느끼는 心 情일 것으로 確信하는 나머지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回顧하건데 4년이란 歲月이 짧으 면 짧은 것이요, 길다면 긴 歲月이기 는 한 것입니다만 우리들이 걸어온 뒷자취를 스스로 돌아볼 때 功過는 차치하고 거기에는 波瀾과 回折, 喜 怒와 哀樂 그리고 大義와 小義의 葛 藤에서 良心의 갈바를 못찾아 하던 지나간 苦情이 이제 다시금 우리들 의 가슴속에 구비쳐 감돌아 이것이 비록 우리들의 가슴에 상처로서 남

아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道理를 다하지 못한 未盡感 못 滿足한 感情을 뿌리깊게 안은채 이 날을 當하고 보니 4년이 하루같이 虛無感과 寂寞感에 사로잡혀짐을 어쩔 수 없이 여겨지는 바입니다.

至今으로 부터 滿 4年前 첫 召集을 보면서 부터 우리들은 한 運命에 얽힌 同志로서 또는 戰友로서 市民의 뜻을 代辯한다는 한 目標아래 온갖 風霜을 같이 겪었고 그럴수록 우리들의 人間面에서의 情誼가 두터워졌던 것임에 오늘의 任期滿了를 다 같이 맞아주기를 願했던 바이지만 不幸히도 이 뜻이 꺾이어 任期中에 辭退하여 물러가신 議員이 姜成俊, 徐相欽氏 두분이 계셨고 또한 그보다도 우리들을 더욱 슬프게 한 것은 初代 議長이신 崔光植先生이 任期中에 逝去하셨다는 事實인 것입니다.

平素에 議會 對內外的으로 德望이 높으신 분이요, 우리들이 한결같이 欽慕하던 분인만큼 한 運命 아래서 싸워온 戰友로서 이제 새삼스러히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한번 冥福을 빌어마지 않은 바입니다.

2代議會가 構成을 본 以來 우리들의 功過를 말함에 있어서는 各自 各論으로 指彈對象이 되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稱頌의 對象이 되었을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議會制度的 草創期에 있어

서 不可避 겪어야만 하였던 必然的 過程이 하나로 擧去함에서가 아니라도 우리들의 時宜를 잊지 못한 것을 닷할뿐 그 以上 우리들의 論할 性格이 못되는 것으로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惡貨가 良貨를 驅逐하던 10餘年の 逆境속에서 또는 한사람이 上典을 通하여 이 나라의 主權者들이 無視되고 民意를 代表하여 싸워야할 地方議會마저 御用機關化를 強要 當하던 그 渦中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였나 할 때에는 實로 良心的으로 쑥스러움을 禁할 길이 없는 바도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들이 우리의 所信에 따라서 市民의 代辯者로서 最少限度나마 우리의 矜持를 가지려고 努力하여 왔다는 것만은 자랑이야 못될망정 事實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라고 不肖 이 사람은 確信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矜持라는게 무엇이나 하면 이에 는 도대체 할 말이 없겠습니까마는 비록 우리가 過去에 自由黨에 籍을 두었던 터이라 손치더라도 黨利黨略에 良心이 얼마만큼 솔렸는가 한 것을 다시한번 돌이켜 볼 따름 獨裁의 陰性的인 監視와 壓力의 쓰라림은 非但 우리만이 겪은 바가 아니라 온겨레가 다같이 겪었고 또 겪은 슬픈 歷程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矜持라는 것을 굳이 말한다면 우리들의 良心의 一片을 그대로 말함일 따름 이에 對해서

는 誤解도 따를 憂慮가 있으므로 보고 言及하기는 삼가하고 싶은 바입니다.

內部的인 問題로 들어가서도 世上에서는 흔히 市議會에는 派가 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誠意의 作用에서 分派를 일삼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實際面에서 이와같은 이른바 派라는 것이 그러한 形態로 存在하여 있었던 것은 是認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결코 어떠한 利害關係로 맺어서가 아니요 私感에서 形成된 것도 아니요 다만 自治行政上의 理念의 差異, 所信의 差異에서 온 것임에 議會運營에 있어서 相互 견제하는 意味에서 利로웠으면 利로웠지 害는 없었다고 이 사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비록 激烈한 論爭이 展開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같이 地方自治의 健全한 發展과 보다 合理的이고 보다 實利的인 方法을 追求함으로서 市民福祉의 向上을 期하자는 熱과 誠意의 表示이지 어디까지나 秋毫의 私心도 끼여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點에서 우리가 막 갈라서려는 이 마당에 秋毫도 所意할바는 못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만 다만 우리들의 애당초 市民들의 代辯者로 뽑아 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바랐나, 또 무엇 때문에

뽑았나 하는 그 純朴한 市民의 울부짖음과 悲願을 생각할 때 그 期待에 完全히 副應치 못하고 그 悲願을 어긴바 많았으리라 생각하면 우리들의 責務를 다하지 못한 自責에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心情에 사로잡혀 市議員라는 이름의 代辯者란 일이나 그 責任이 重하고 크고 깊은 것인가를 다시한번 뼈에 사무쳐지는것만은 우리가 또다시 議政壇上에 脚光을 받거나 一個 野人으로 處해서나間에 永遠히 마음의 한구석에 4年間の 傷處로서 새겨져 있지 않을까 또는 이것만이 市民諸位에게 마지막으로 謝過하고 報答해 올리는 良心의 表示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錯雜한 心情에서도 우리에게 滿足과 기쁨과 한줄기의 希望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꽃송이 젊은 學徒들의 거룩한 피를 흘려 革命을 이룩하였고 이 革命過程을 嚴肅하면서 希望과 榮光이 가득찬 무렵에 우리가 물러가드라도 다음에 構成되어질 議員이야말로 우리가 못 滿足하고 大義와 不義가 마음속에서만 葛藤하던 爰곳은 議會 立場에 根本的인 變革을 가져오게 될 것이 既定事實이며 이로서 自由스러운 분위기속에서 自由스러운 意思表示를 通하여 自由스러운 民意가 反映되어지는 名實相符한 自由의 殿堂이요 民意의 殿堂

이 되어진다는 嚴然히 닦아지는 事實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 眞心으로 이 事實을 慶賀하고 祝願하면서 우리가 못한 일을 3代 議員들이 代身하여 實現해 주리라는 期待에서 이 마지막날 비로소 우리들은 4年間の 宿願이 이룩되는데 對하여 會心の 기쁨을 느끼고 滿足하여 물러서야 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議長된 이 사람이 公私 未洽한 點이 많았음을 솔직히 是認하는바 無限한 未安感을 느끼면서 이 點 議員同志의 寬容만 바랄 뿐입니다.

여러 議員께서는 아무쪼록 大志에 꺼리낌이 없도록 自重自愛하시고 부디 尊體健勝하셔서 健闘 있으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하고 懇曲히 바라면서 閉會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西紀 1960年 8月 2日

議長 金榮浩

〈祝 辭〉

第31回 臨時議會 閉會式에 있어서 저에게 祝辭의 機會를 주게 되어서 大端히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自治制度가 생겨난 것은 13年前이올시다.

13年前 7月달에 地方自治法이 公布를 보게 되어서 그 後 自治法 第1條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國家의 監督을 받으므로 住民의 自治를 象徵함으로서 우리나라의 民主發展을 期한다는 이러한 通則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自治行政을 圓滑히 하므로서 그 地方住民의 幸福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나가서는 그 地方의 發展과 아울러 그 나라의 民主發展을 期하는 것이 結局 自治行政이라고 보겠습니다.

勿論 地方自治法이 우리나라에 처음 實施를 본 後 議決機關인 地方議員選舉는 이것이 2代 滿8年을 겪어온 歷史를 가져왔습니다만 議決機關이 相對 卽 執行機關長은 地方自治法을 네번이나 고쳐왔던 것입니다. 特히 既得權을 認定한다 或은 直選制로 한다 或은 間選制로 한다 或은 任命制 等等의 네번에 걸친 自治法을 改正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4月革命 以後 第2共和國을 樹立하는 커다란 內閣責任制의 憲法을 通過할적에 憲法에 地方自治團體

의 長은 적어도 選舉하여야 한다는 明文이 우리 國法에 挿入되어 通過되므로서 宜當 憲法이 適用되지 않은 限 우리 地方議員選舉와 마찬가지로 執行機關長인 自治團體의 長도 住民의 選舉로서 完全히 民主主義行政을 올바르게 執行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오로지 國家를 爲하고 百姓을 爲하여 大端히 기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地方에도 初代, 2代議會가 構成되어 8年이라는 長久한 時間동안 議決機關이 存續되므로 濟州市 發展이라는 것은 비약적으로 發展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執行機關만 있고 議決機關만 없어서는 民主主義原則下에 있는 民主行政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卽 말하면 어떠한 獨裁的行政을 해나가는 弊端이 있으므로 議決機關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8年동안 우리市의 發展相을 돌아다 볼 때 우리나라 어느 地方을 가볼지언정 우리 濟州市 같이 急進的으로 發展된 地方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第2代 議決機關인 議員同志 여러분은 오늘까지 滿 4年 동안 市發展을 爲해서 努力했다는 것은 앞서 業績報告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列舉할 수가 없는 程度로 急進的으로 發展되었다는 것은 世人이 다 認證하는 바입니다. 勿論 이것이 地方住民의 幸福을 爲한 것

이며 또한 發展을 爲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훌륭히 發展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議決機關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執行機關長이 獨裁行政을 함으로서 그 地方住民의 不幸을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 地方發展을 도저히 가져볼수 없는 이러한 制度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議決機關議員님들은 執行機關長도 이제는 市民의 全體的으로 選舉를 보게된 것도 그만큼 發展이 되었다고 봅니다.

議員 여러분 4年동안 여러분의 業績이야말로 우리 市民 全體는 여러분의 業績에 感謝의 意를 表함과 同時에 또한 業績은 永久한 歲月을 거쳐서 빛날줄 저는 確信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業績을 남겨둔 그 業績이야말로 子孫代代에 이를 때까지 그 業績을 讚揚해 나가리라고 저는 確信하는 바입니다. 저는 任期가 다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空白狀態로 들어가는 이 期間을 저는 어떻게 執行해 나갈까 大端히 職員 同志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議決機關이 있는 동안은 힘이 되어서 行政的으로 어떤 問題가 있어도 非公式으로 여러분과 論議해서 또한 公式的으로도 議會에

附議해서 議會議決을 거쳐서 事務를 執行함으로서 우리는 安心해서 市民들에게서 어떤 욕을 안듣고 圓滑히 해왔던 것입니다.

몇달동안 空白狀態가 繼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大端히 憂慮할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議員同志 여러분들은 저는 今後라도 그 期間中은 여러 議員님들에게 公的으로나 非公式的으로 議論할 것은 議論해 볼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行政에 利되도록 協助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簡單합니다만 閉會式에 際하여 以上 祝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